

북한 통치 수단으로서 경관의 활용 방식 연구 : 『로동신문』 현지지도 보도를 중심으로*

How does North Korea Use Their Landscapes as a Means of Governance?
: Based on field guidance reports in Rodong Sinmun

안진희 Ahn Jin-Hee**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ways in which North Korea utilizes their landscapes as a means of governance. To this end, Kim Jong-Il and Kim Jong-Eun's field guidance reports over the same number of month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ways they connect with the landscape', 'the types of landscape' and 'the areas where the landscape is located'. As a result, differences in how the two regimes utilize landscape are identified through the leader's backdrop. The backdrop of the Kim Jong-Il regime was a landscape painting that was static to the reception area. The Kim Jong-Eun regime, on the other hand, replaces backdrop with the landscape located in the background of the ruler in the photographs of the Rodong Sinmun's field guidance reports. Next, a pattern of avoidance of economic conditions can be found in the landscape represented in the media of the two regimes. In the media, Kim Jong-Il is emphasized to push ahead with tough terrain despite the bad weather to take care of the struggling economy. Kim Jong-Eun has kept the new and large-scale landscapes, close through the field guidances. However, far away from the landscapes, which can be responsible for solving the problem. The strategy of going directly to the site, but remaining symbolic rather than a practical solver was implemented by adopting mobility in different directions by the two regimes. Each of these is human mobility and landscape mobility.

Keywords: North Korea, Urban Landscapes, Field Guidance, Rodong Sinmun, Kim Jong-Eun, Kim Jong-Il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북한의 보도매체는 논조와 정책 방향을 통해 동향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다. 그중에서도 『로동신문』(이하 노동신문)은 최고 통치자의 현지지도를 보도하는 대표 출판 매체다. 노동신문은 현지지

도에 나타나는 통치자의 태도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현장에 대한 언급을 문자화한다는 점에서 방송 매체와 구분된다. “조선로동당의 기관지로서 당 노선의 입장을 밝히고 정책을 홍보하며 대중을 교양”(박영실 2013, 333)할 뿐만 아니라 통치자의 현지지도를 사진과 기사를 통해 상세히 보도하는 데 노동신문의 역할이 있다는 점을 통해 그 위상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고 통치자의 활동을 보도하는 대표적 출판 매체인 만큼

* 이 논문은 안진희(2019)의 박사학위 논문 “『로동신문』 현지지도 사진을 통한 북한 경관의 시각 체제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기술사사무소 이수 연구소장 | Director of Urban Curating Lab., ESOO Landscape Architects | ginnyahn@gmail.com

Figure 1_ The Photographs of Field Guidance in Rodong Sinmun



Source: *Rodong Sinmun*.

보도에서 지켜야 할 일종의 관행과 규칙이 존재할 것 이란 추측을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노동신문의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 수산사업소 현지지도 보도에서 지도 대상에 대한 김정은 의 새로운 언급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경관에 관한 것이다.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은 가까이에서 보아도 멋있 고 멀리에서 보아도 희한하다고, 풍치수려한 능금 도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금산포지구에 또 하나의 경관의 생겨났다고 말씀하시였다”(본사정 치보도반 2017, 1면).

북한에서 ‘경관’은 1960년 출판된 「조선말사전」에 서도 찾을 수 있는 오래된 용어지만,¹⁾ 현지지도 기사 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위 기사를 통해 다 음과 같은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경관이 북한에 서 생소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김정은이 공장

과 사업소와 같은 현지지도 대상을 경관으로 인식한 다는 점, 무엇보다 이러한 언급이 “현지에 직접 내려 가서 지도하는 것 또는 그 지도, 가장 혁명적이며 인 민적인 대중지도방법의 하나”(사회과학출판사 2017, 146)로 여겨지는 현지지도 중 이뤄졌다는 점이다.

위 내용을 토대로 현지지도를 통한 통치 방식에서 경관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 다.²⁾ 이를 증명하듯, 김일성 체제부터 현재까지 현지 지도 사진에서 경관은 구도에 있어 통치자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Figure 1> 참조). 이는 노동신문 내 보도 관행과 규칙이 존재할 것이라 는 추측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 논문은 통치의 수단으로서 북한이 경관을 활용 하는 방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김정일 현지지도와의 비교를 통해 경관의 활용 양상을 분석하고, 현재 김정 은 체제에서의 경관 변화와 이것이 시사하는 바를 진 단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1) 경관: 1. = 경제, 2. (지리) 지형, 기후, 룩수, 토양, 생물계, 인간의 경제적 활동 등이 호상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일정한 지역의 통일된 전형적 특성, 혹은 이러한 특성이 있는 일정한 지역(언어 문학 연구소 1960, 226).

2) 김정일의 선군정치 역사를 풀이한 ‘선군8경’에서도 통치에 경관이 활용된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음. 선군8경은 ‘백두산의 해돋이’, ‘대흥단의 감자꽃바다’, ‘울림폭포의 메아리’, ‘범안리의 선경’, ‘다박술초소의 설경’, ‘철령의 철쭉’, ‘한드레벌의 지평선’, ‘장자강의 불야성’이며, 여덟 가지 경관과 관련된 김정일의 일화는 대부분 현지지도 내용을 바탕으로 함(전문원 2005a, 11-12; 2005b, 15-17).

Table 1_ Categories of Field Guidance Articles in Rodong Sinmun during the Selected Period

(unit: number)

Leader	Field Guidance Periods	Articles	Field Guidance Periods with the Same Number of Months(79 Months)	Field Guidance Articles for the Equal Number of Months	Pictures
Kim Jong-Il	Mar. 1998 – Dec. 2011	421	March 1998 – September 2004	113	157
Kim Jong-Eun	Jan. 2012 – Jul. 2018	310	January 2012 – July 2018	310	393

2. 연구 방법

김정은 체제에 나타난 경관 활용 방식의 변화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비교 대상을 필요로 한다. 이 논문은 김정일과 김정은 체제의 현지지도 비교가 연구 방법의 전체적 틀이다.

먼저 두 통치자의 비교를 위해 집권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했다. 김정일이 ‘현지지도’란 이름으로 사진과 함께 보도된 기간은 1998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노동신문의 김정일 현지지도 보도 기사는 총 421개다. 김정은의 현지지도는 2012년 1월 23일 ‘허철용 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시작으로 2018년 7월까지 총 113개의 기사가 보도됐다. 2012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에 해당하는 79개월을 김정일 현지지도 보도 기간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김정은과 동일한 기간 동안 김정일의 현지지도 보도 기간은 1998년 3월부터 2004년 9월까지이다. 동일한 개월 수 동안 김정일과 김정은의 현지지도 보도 기사는 각각 113개와 310개며, 사진의 개수는 각각 157개와 393개다(<Table 1> 참조).³⁾

다음으로, 동일한 개월 수 동안 보도된 김정일과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경관과 통치자의 연계 방식’, ‘경관의 종류’, ‘경관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분석했다.

노동신문의 현지지도 사진은 크게 통치자가 경관을 바라보거나, 경관을 배경에 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Figure 2> 참조). 이 논문은 이를 ‘응시’(Gaze)와 ‘배경’(Background)으로 나눠 각 유형에 해

Figure 2_ Photographic types of ‘Gaze’ and ‘Background’



Source: *Rodong Sinmun*.

3) 동일한 개월 수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 개수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노동신문이 현지지도 기사의 헤드라인을 작성하는 방식의 변화에서 기인함. 김정일 체제의 현지지도 기사는 한 번의 현지지도에서 여러 가지 경관을 지도한 경우, 이를 하나의 헤드라인으로 묶어 보도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김정은 체제에서는 경관마다 각각의 헤드라인을 부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음. 이 논문은 하나의 헤드라인을 하나의 기사로 간주했음.

Table 2 _Types of Supervised Landscapes

Industry/Facility Sector	Particulars	
Factory/Industrial Complex	Heavy Industry	Iron, Industrial Machinery, Tires, Automobiles, Shipbuilding
	Chemical Industry	Fertilizer, Synthetic Resins, Medicine
	Light Industry	Textiles, Clothing, Groceries, Daily Necessities
	Electricity/Communication	Electrodes, Electrical Equipment, Heating, Semiconductor
	Mining Industry	Coal, Iron Ore, Nonferrous Metal, Nonmetallic Mineral
	Construction Materials	Brick, Roof Tile, Tile, Glass, Stone
Agricultural/Stockbreeding/Fishing Industry	Cooperative Farm, Livestock Processing Plant, Fishing Station, Saltern, Tree Nursery	
Energy	Hydroelectric Power Station, Thermal Power Station, Small and Medium-sized Power Station, Solar Power Station	
Transportation	Thoroughfare, Bridge, Railway, Harbor, Vehicle, Airports, Subway	
Culture/Propaganda	Theater, Museum/Exhibition, Education/Study Facility, People's Hall/Palace, Memorial Monument, Revolutionary Historic Site	
Education/Health/Care	Hospital, Clinic, Nursing Home/Sanatorium, Day Care Center, Kindergarten, School	
Science/Research	Laboratory, University, Campus Facility	
Commercial/Convenience Service	Store, Restaurant, Public Bath, Bank, Exercise Facility, Recreation Facility, Department Store, Hotel	
Amusement/Entertainment/Tourism	Amusement Park/Public Park, Ski Resort, Beach, Hot Spring, Zoo, Water Park	
Sports	Gymnasium, Swimming Stadium, Sports Stadium	
Housing/Construction/Civil Engineering	Waterway, Land Arrangement, Tideland, House, Boulevard/District	

Source: Park, Yang, Kim and Song et al.(2002), Lee and Lee(2014), Hong(2014), Modified.

당하는 두 통치자 사진의 개수를 파악했다.⁴⁾ 이를 통해 사진에서 경관과 통치자의 관계가 형성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했다.

경관의 종류에 따른 분류는 두 통치자가 현지도가 이뤄진 경관이 어떤 산업 또는 시설 부문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Table 2> 참조). 이를 통해 두 기간 동안 집중된 주요 사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현지도가 이뤄진 경관의 전반적인 규모와 그 모습 또한 파악할 수 있다.

현지도하는 통치자의 존재가 “사실상 ‘계획’이 작동하지 않는 북한 경제에 생산 동력을 유인하는 핵

심적 역할”(홍민 2002, 173-174)을 수행하므로, 지역의 경제 발전이 요구될수록 다수의 현지도도를 필요로 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두 통치자의 현지도가 이뤄진 경관의 시·도·군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두 통치자가 현지도한 지역과 지역별 빈도, 지역별 주요 경관을 파악할 수 있다.⁵⁾ 다만 두 통치자가 현지도가 나타난 경관의 개수가 기사의 개수와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사 내용뿐만 아니라 현지도 동향 보고서(통일연구원 2011)를 참고해 경관을 세부적으로 목록화하는 과정을 선행했다. 이 과정에 따라 도출한 경관의 개수는 논문이 동일하게 설정한 기간 동안

4) ‘응사’ 유형에서 통치자는 한 개 또는 두 개의 사진 프레임에서 경관을 응시하는데, 이 논문은 두 개의 사진 프레임에 걸쳐 경관과 통치자가 연결된 경우 이를 하나의 사진으로 간주했음.

5) 경관이 위치한 시·도·군은 북한정보포털(<http://nkinfo.unikorea.go.kr/>), 구글어스(<https://earth.google.com/>), 위키매피아(<http://wikimapia.org/>)를 활용해 파악했음.

김정일이 262개, 김정은이 330개다.

위 세 가지 측면에서 김정일과 김정은의 통치 수단으로서 활용된 경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경관 활용 방식을 진단하고자 하는 이 논문은 연구 방법에 의한 분석 결과 도출(Ⅱ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김정일, 김정은 체제의 경관 활용 방식 해석(Ⅲ장), 김정은 체제에서 경관 활용에 나타나는 변화와 특성 진단(Ⅳ장), 시사점 제시(Ⅴ장)의 구성을 갖춘다.

II. 김정일·김정은 체제의 경관 특성

1. 사진에서 경관과 통치자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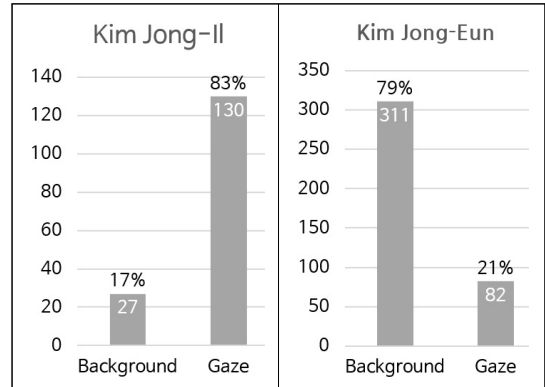
김정일과 김정은의 현지도 사진을 ‘응사’와 ‘배경’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김정일의 경우, 현지도 사진 157개 중 83%에 해당하는 130개의 사진에서 경관은 통치자가 바라보는 시선에 놓이는 구도가 나타났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경관이 통치자의 응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김정은의 현지도 사진에서는 ‘응사’와 ‘배경’ 유형의 비율에 반전이 나타났다. 393개의 사진 중 79%에 해당하는 311개의 사진에서 경관은 통치자의 배경이 되는 구도에 놓였다.

2. 경관의 산업 및 시설 부문

김정일과 김정은의 현지도가 이뤄진 경관의 산업 및 시설 부문별 비율은 <Table 3>과 같다. 산업 및 시설 부문에서 두 통치자의 현지도는 공장/기업소 비율이 각각 34.4%, 35.5%로 공통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율에 높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농축수산 부문에 대한 현지도의 비율이 공장/기업소 다음으

Figure 3_ The Ratio of ‘Gaze’ and ‘Background’ in Two Rulers’ Photographs



로 높은 것 또한 같은 점이다.

그러나 각 산업 및 시설 부문을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한 항목에서 두 통치자의 현지도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수산사업소와 회관/궁전과 같이 김정일의 현지도에도 나타났으나 김정은의 현지도에 들어 그 횟수가 증가한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병원, 보육/양로, 스키장, 물놀이장, 공항과 같이 김정일 현지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항목이 김정은의 현지도에서는 새롭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김정일의 현지도에는 있었던 주거/건설/토목 부문의 토지정리와 수로/수원지가 김정은 현지도에서는 거리/구역으로 전면 교체된 경우가 있다. 결과적으로 김정일과 비교했을 때 김정은의 현지도에서 횟수가 증가하거나 새롭게 나타난 경관은 수산사업소, 회관/궁전, 병원, 보육/양로, 거리/구역, 스키장, 물놀이장, 공항이다.

3. 경관이 위치한 지역

두 통치자의 현지도 보도에 나타난 경관의 지역적 위치를 파악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도 단위에서 김정일의 현지도는 자강도(21.4%), 함경남도(17.6%), 평안북도(16.8%)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

Table 3 _Types of Landscape Supervised by Kim Jong-II and Kim Jong-Un During the Equally Set Period

Kim Jong-II					Kim Jong-Eun							
Period		Mar. 1998 - Sep. 2004			Period		Jan. 2012 - Jul. 2018					
Supervised Landscapes		Num ber	Sub total	%	Supervised Landscapes		Num ber	Sub total	%			
Industry/Facility Field	Particulars				Industry/Facility Field	Particulars						
Factory /Industrial Complex	Heavy Industry	39	90	34.4	Factory /Industrial Complex	Light Industry	65	117	35.5			
	Light Industry	38				Heavy Industry	35					
	Chemical Industry	4				Chemical Industry	12					
	Mining Industry	4				Construction Materials	4					
	Electricity/Communication	3				Electricity/Communication	1					
	Construction Materials	2				Fishing Station	28					
Agricultural/Stockbreeding /Fishing Industry	Cooperative Farm	46	72	27.5	Agricultural/Stockbreeding /Fishing Industry	Cooperative Farm	21	59	17.9			
	Livestock Processing Plant	16				Livestock Processing Plant	5					
	Fishing Station	6				Tree Nursery	4					
	Saltern	3				Saltern	1					
	The Others	1										
Energy	Hydroelectric Power Station	39	44	16.7	Culture/Propaganda	Revolutionary Historic Site	9	32	9.7			
	Small and Medium-sized power Station	5				People's Hall/Palace	8					
Housing/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Land Arrangement	14	18	6.8		Education/Health/Care	Museum/Exhibition			8	25	7.6
	Waterway	4					Education/Study Facility			4		
Culture/Propaganda	Revolutionary Historic Site	10	13	5.0	Housing/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Theater	3	20	6.1		
	Memorial Monument	2				Boulevard/District	20					
	People's Hall/Palace	1					Amusement/Entertainment /Tourism	Amusement Park	11	18	5.5	
Amusement/Entertainment /Tourism	Amusement Park	4	6	2.3	Ski Resort	5						
	Beach	2			Water Park	2						
Science/Research	Laboratory	6	6	2.4	Science/Research	Laboratory	18	21	6.4			
	University	1				University	3					
Education/Health/Care	School	4	4	1.8	Commercial /Convenience Service	Store, Exercise Facility	16	16	4.8			
Commercial /Convenience Service	Public Baths, Exercise Facility	2	2	0.8	Transportation	Airports	5	9	2.7			
						Subways, Railways	4					
Transportation	Harbor	1	1	0.4	Sports	Gymnasium, Sports Stadium	9	9	2.7			
Unknown	-	5	5	1.9	Energy	Hydroelectric Power Station	4	4	1.2			
Total		-	262	100	Total		-	330	100			

났다.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강도부터 그 다음인 함경남도 사이의 비율 차이는 0.8%, 함경남도와 그 다음인 평안북도 사이는 3.8%의 비율 차이를 보여 각 지역

사이의 비율차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도내 시·군 단위에서 본 경우, 자강도 강계, 함경남도 함흥, 그리고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김정일의 현지도의 비율이

Table 4 _ Comparison of Regions Frequented by Kim Jong-II and Kim Jong-E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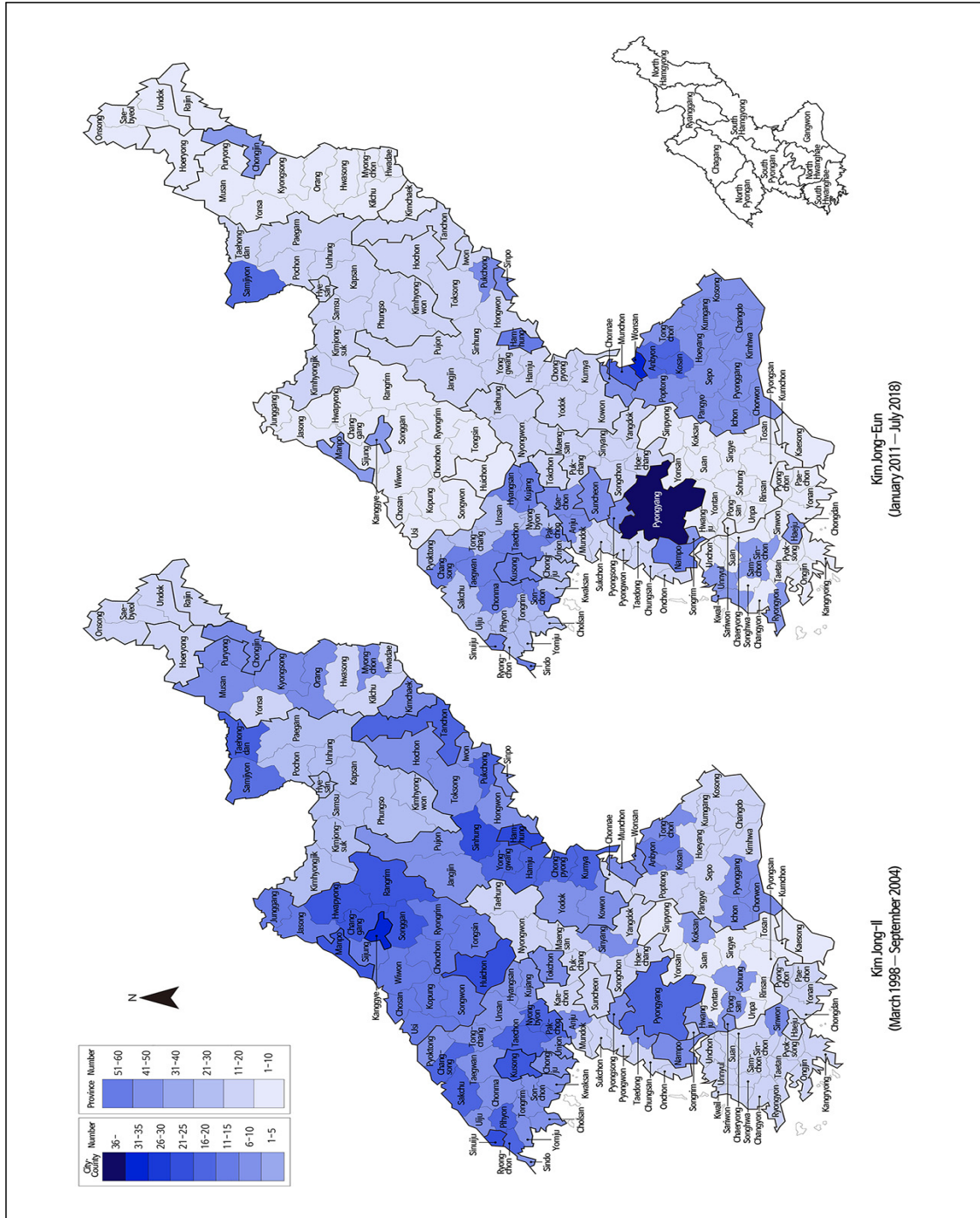
Kim Jong-II					Kim Jong-Eun				
Period		Mar. 1998 - Sep. 2004			Period		Jan. 2012 - Jul. 2018		
Region		Number	%	Rating	Region		Number	%	Rating
Capital · Province	City · County				Capital · Province	City · County			
Chagang	Kanggye	32	21.4	1	Pyongyang	-	176	53.3	1
	Huichon	8							
	Manpo	5							
	The others	11							
South Hamgyeong	Hamhung	14	17.6	2	Kangwon	Wonsan	32	12.7	2
	Sinhung	11				Munchon	5		
	Tanchon	5				Kosan	3		
	The others	16				Anbyon	2		
	North Pyongan	Sinuiju			10	16.8	3	North Pyongan	Changsong
Kusong		8	Sinuiju	4					
Taechon		7	Pakchon	3					
The others		19	The others	15					
Ryganggang		Taehongdan	15	9.2	4			South Pyongan	Nampo
	Samjiyon	9	Anju			5			
	North Hamgyeong	Chongjin	6			7.3	5		South Hamgyeong
Kimchaek		4	Hamhung	9					
Orang		2	Sinchon	2					
The others		7	the others	2					
Kangwon	Anbyon	8	5.7	6	Ryganggang	Samjiyon	12	3.6	6
	Wonsan	2							
	The others	5							
Pyongyang	-	14	5.3	7	South Hwanghae	Ryongyon	2	3.0	7
South Pyongan	Anju	4	4.2	8		Sinchon	2		
	The others	7				Samchon	2		
South Hwanghae	Kwail	3	4.6	9		The others	2		
	Chagang	Pyoksong			2	Kanggye	3	1.2	8
		The others			7	Manpo	1		
North Hwanghae	Sohung	3	1.9	10	North Hwanghae	Songrim	2	0.6	9
	The others	2			North Hamgyeong	Chongjin	1	0.3	10
Unknown	-	16	6.0	-	Unknown	-	24	7.3	-
Total		262	100	-	Total		330	100	-

높게 나타났다.

김정은의 경우, 현지지도는 평양(53.3%)과 강원도(12.7%)에서 높게 나타났다. 평안북도는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의 현지지도가 나타났

으나, 김정일의 현지지도(16.8%)에 비해 비율이 절반(8.2%)으로 감소했다. 도내 시·군 단위에서 본 경우, 김정은은 평양 다음으로 강원도 원산에서의 현지지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Figure 4_Visualization of Regions Frequented by Kim Jong-Il and Kim Jong-Eun



Note: Mapping method - First, the mapping of the two rulers' field guidance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color depth charted by the city and county. Next, the number of field guidances in cities and counties was added to the number of field guidances in areas where the province was only identified. The figures were further mapped to the province units according to the color depth charted.

두 통치자의 현지도를 지역 단위로 맵핑한 결과에 따라 <Figure 4>와 같은 시각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일의 현지도는 북한 전역에서 비교적 균등한 비율을 보이는 반면, 김정은의 현지도는 평양과 원산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

III. 김정일·김정은 체제의 경관 활용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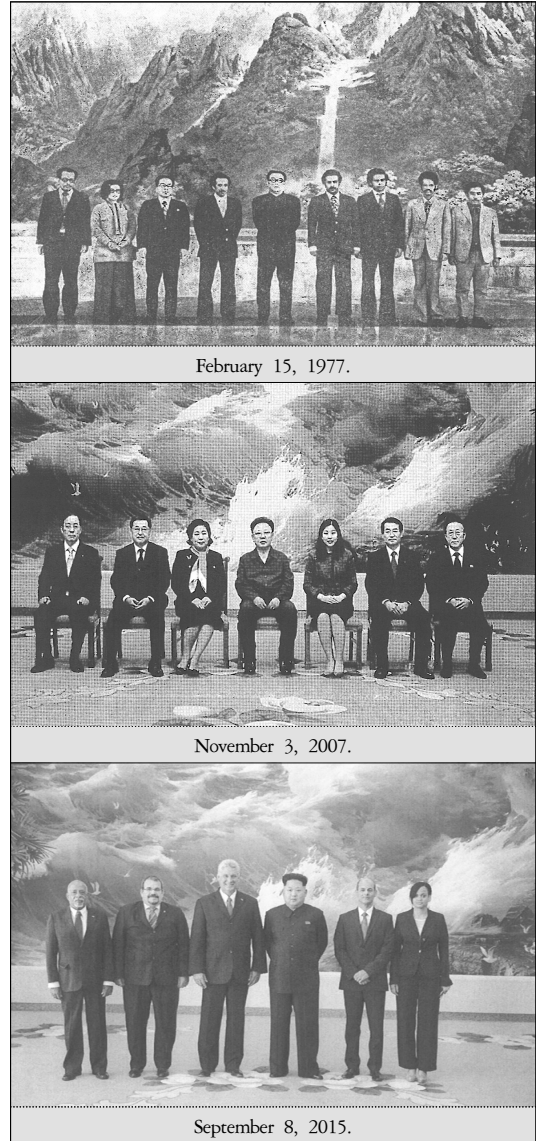
1. 배경막에 투영된 경관 차이

17세기 후반부터 연극 무대에 도입된 배경막(Backdrop)은 이후 새로운 용도로 재정의되었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에 따르면, 19세기말 유럽에서 초상화 대신 스튜디오 사진이 유행하면서 배경막이 적극 활용되었다(Benjamin 2007, 174-175). 당시 사람들은 배경막을 활용해 실내에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자신들이 사진 스튜디오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었다(Benjamin 2007, 174-175).

김남시(2015, 56)는 사진에 쓰이는 배경막을 “상상된 이상적 공간 속에 현실의 자신을 위치시키고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연출하게 하는...일종의 가상의, 이상화된, 낭만화된 자연과 목가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마치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시각적 장치”로 평가하며, 이러한 배경막의 특징이 북한의 외교적 장면에서 항상 나타나는 점에 주목했다(<Figure 5> 참조). 그에 따르면 북한은 국민이나 외국 정상들이 방문하면 거대한 자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김남시 2015, 55).

김일성부터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 집권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배경막 문화는 계속됐다.⁶⁾ 이것이 지속

Figure 5 _ Backdrops of North Korea's Official Reception Area



Source: *Rodong Simun*.

됨에 따라 각 통치자별로 배경막에 표현된 경관이 일관성을 띠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김

6) 북한의 공식 촬영에 배경막이 등장한 것은 1977년 2월 15일자 노동신문부터임. 그 이전에는 흰 벽 앞에서 촬영이 이뤄졌음(변영욱 2015, 119).

일성과 김정일은 각각 북한의 산수경관과 거친 파도가 그려진 풍경화가 그들의 배경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배경막에 있어 아직 일정한 주제의 경관과 연계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2018년을 기준으로 김정은은 아직 김정일이 사용한 파도 그림을 교체하지 않았다.

한편, 김정은은 앞서 ‘응사’와 ‘배경’ 유형으로 분류해 비율을 본 현지도 사진에서 ‘배경’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응사’ 유형에 해당하는 사진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김정일과 대조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응사’와 ‘배경’ 사이의 큰 비율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다.

먼저 두 통치자 체제 사이의 현지도 보도에 있어 사진을 통해 부각시키고자 하는 가치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지도관 통치자의 정책이 올바르게다는 것을 대중의 경험 속에서 확신시키고, 그들의 의식을 끌어올림으로써 지지를 획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Stalin 1976, 199). 또한 황재준(2001, 60)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도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인민대중” 이므로, “지도의 구체적 방법은 지도와 대중과의 결합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노동신문의 현지도 사진을 ‘지도와 대중 사이의 결합’을 ‘시각화’하는 매체로 읽어낼 수 있다. 김정일 체제에서 이러한 시각적 결합은 ‘통치자가 무엇을 보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김정은 체제에서는 현지도에 나타나는 경관은 ‘보는 대상’이기보다는 ‘배경에 두는 대상’에 가깝다. 무엇보다 아직 김정은과 연계되는 배경막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배경막 문화의 투영 대상이 김정은

체제에 이르러 ‘재현된 경관’에서 ‘실제적 경관’으로 전환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점차적으로 진보한 촬영 기술 또한 북한의 다양한 경관을 배경막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 경관은 김정은이 현지도도를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변환되는 배경막이 될 수 있다.

2. 경관의 규모 차이

앞서 <Table 3>에 나타난 김정일과 김정은 현지도의 가장 큰 차이로 먼저 수산사업소와 회관/궁전에 대한 현지도도 횡수, 그리고 병원, 보육/양로, 거리/구역, 스키장, 물놀이장, 공항에 대한 현지도도의 유무를 꼽을 수 있다.⁷⁾

수산사업소에 대한 현지도도는 김정은이 김정일에 비해 5배 정도 많았다. 김정은 체제에서 나타난 수산사업소의 특징은 시설 규모라 할 수 있다. 2015년 5월 23일 노동신문에 보도된 석망대서양연어종어장의 부지 면적은 97,200㎡다.

회관/궁전에 대한 현지도도는 김정일은 창성군문화회관 한 곳에서 있었으나(2002년 10월 26일자 노동신문), 김정은은 창성군문화회관뿐만 아니라 삼지연학생소년궁전, 삼지연문화회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를 현지도도 했다. 이 중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국제친선소년회관, 야외운동장, 실내수영관, 야외물놀이장, 야외활쏘기장, 수족관, 조류사, 동물박제품진열실 등이 있는 복합시설이란 점에서 이전까지의 회관/궁전과 구분되는 규모의 차이가 나타난다.

김정은이 현지도도한 병원, 보육원, 양로원은 모두

7) 수산사업소는 양어장, 양어사업소, 어류 공장 등의 수산업 관련 시설로 구성된 기지를 통칭하는 용어. 회관과 궁전은 각각 문화회관과 소년학생궁전을 의미하는데, 근로자와 청소년의 사상이론, 과학기술 수준, 문화적 소양 함양이 목적인 기관 또는 건물임(박영정, 양현미, 김혜준, 송승섭 외 2002, 157).

Figure 6 _ Kim Jong-Eun and Ryugyong General Ophthalmic Hospital



Source: *Rodong Sinmun* October 18, 2016.

김정은 집권 이후에 건설된 것으로⁸⁾ 화사한 색상, 고층 건물 또는 넓은 면적으로 이뤄진 현대적인 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Figure 6> 참조).

김정은 체제에 들어 새로 건설된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평양국제비행장 여객터미널 철거 후 신설된 항공역사에 대한 현지지도가 새롭게 나타났다. 이들 또한 모두 대규모 시설이라는 특징으로 연결된다.

거리/구역에 대한 현지지도가 김정일의 경우에는 찾을 수 없는 반면, 김정은의 현지지도에는 건설 사업으로서 본격화되는 조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로 김정일 체제 시기의 경제난을 들 수 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1970~1980년대에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나,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난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건설에 어려움이 있었다(홍민 2014, 37-42). 그 대신 식량난 해결을 위한 토지구조개선 차원의 토지정리가 김정일 체제에서 실시되었다(서재진 2001). 주거/건설/토목 부문의 김정일 현지지도가 토지정리, 수로/수원지 중심인 것 또한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과 일치한다.

반면, 김정은의 현지지도 시기에서는 대단지 아파

Table 5 _ Housing/Construction/Civil Engineering Field Supervised by Kim Jong-Eun

Field, Region	Report Date
Changjon Street, Pyongyang	May 26, 2012
	May 31, 2012
Unha Scientists Street, Pyongyang	Aug. 7, 2013
Ssuk Island, Pyongyang	June 2, 2014
	Feb. 27, 2015
	Oct. 28, 2015
Wisong Scientists Residential District, Pyongyang	Jun. 20, 2014
	Oct. 14, 2014
Mirae Scientists Street, Pyongyang	May 21, 2014
	Oct. 17, 2017
	Feb. 15, 2015
	Oct. 21, 2015
Ryomyong Street, Pyongyang	Aug. 14, 2013
	Sep. 29, 2013
	Jan. 26, 2017
	Mar. 16, 2017
Wonsan-Kalma Coastal Tourism Area	Apr. 14, 2017
	May 26, 2018
Samjiyon, Ryanggang-do	Jul. 10, 2018

트 건설, 복합 관광 단지, 전당 등의 대규모 건설 사업이 다시 본격화된 것을 볼 수 있다(<Table 5> 참조). 종합해보면, 김정일과 비교해 김정은의 현지지도에서 횡수가 증가하거나 새롭게 추가된 부문에 해당하는 경관은 모두 대규모에 고층 아파트와 같은 수직성이 강조된다는 공통점으로 귀결된다.

3. 경관 분포 정도의 차이

김정일과 김정은의 현지지도 보도에 나타난 경관은 북한 전역에서의 분포에 있어 각각 ‘균등함’과 ‘집중’이라는 대조적인 시각적 차이가 나타난다(<Figure

8) 경성탁아소와 경상유치원은 2012년, 대성산종합병원은 2013년,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 평양애육원·육아원은 2014년, 원산애육원·육아원과 평양양로원은 2015년, 류경안과종합병원은 2016년에 완공되었음.

4> 참조). 이러한 큰 차이에 대해, 두 통치자의 현지 지도 비율이 높은 지역의 산업 및 시설 부문을 비교함으로써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김정일의 현지지도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은 자강도 강계, 함경남도 함흥, 평안북도 신의주인데

(<Table 4> 참조), 이곳에 위치한 경관의 산업 및 시설 부문은 당시 북한의 경제적 상황을 적절히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Table 6>과 같이 김정일의 현지지도가 다수 나타난 지역의 경관을 산업 및 시설 부문에 따라 분류한 결과에 따르면, 강계는 공장/기업소, 농

Table 6 _ The Supervised Landscapes in Regions Frequented by Kim Jong-Il

Region	Industry/Facility field	Particulars	Landscapes
Kanggye, Chagang	Factory/Industrial Complex	Light Industry	September textile Factory(9월방직공장), Kanggye Wine Factory(강계포도술공장), Kanggye Unha Clothing Factory(강계피복공장), Kanggye Silk-spinning Factory(강계견방직공장), Kanggye Knitted Goods Factory(강계편직공장), Kanggye Essential Foodstuff Factory(강계기초식품공장)
		Heavy Industry	Amrokgang Tire Factory(압록강다이어공장), Kanggye General Tractor Plant(강계트라ктор총합공장), Jangjagang Machine Tool Plant(장자강공작기계공장), Kanggye Precision Machinery Plant(강계정밀기계총합공장), Kanggye Steelworks no.8(강계8호제강소)
		Chemical Industry	Kanggye Aeguk Compound Microbial Fertilizer Factory(강계애국합미생물비료공장), Kanggye Koryo Medicine Factory(강계고려약공장)
		Construction Materials	Kanggye Roof Tile Factory(강계기와공장)
	Agricultural/Stockbreeding /Fishing Industry	Livestock Processing Plant	Kanggye Chicken Processing Plant(강계닭공장), Heungju Chicken Processing Plant(흥주닭공장), Kanggye Rabbit Breeding Stock Farm(강계토끼종축장)
		Cooperative Farm	A Mulberry Plantation Under Kanggye Project Management Office(강계사사업관리소팽밭)
	Energy	Hydroelectric Power Station	Changkang Army-people Youth Power Station no.3(장강3호군민청년발전소), Pukcheon Power Station no.2(북천2호발전소), Hungju Youth Power Station(흥주청년발전소)
	Culture/Propaganda	Revolutionary Historic Site	Hyangha Revolution Historic Site(향하혁명사적지), Yonphung Revolutionary Museum(연풍혁명사적관), Kanggye Gaekju House(강계객주집)
	Housing/Construction/Civil Engineering	House	An Electrically Heated Residential Village(전기난방화된살림집마을)
	Education/Health/Care	School	Kanggye Jangjagan Primary Middle School(강계장자산제1중학교)
Hamhung, South Hamgyong	Factory/Industrial Complex	Heavy Industry	Sinhung machine Factory(신흥기계공장), Ryongsong Machine Complex(룡성기계련합기업소), Large-scale machine tool Factory(대형공작기계공장), Primary steel workplace(제1주강작장), May 20th daesung Factory(5월20일대성공장)
		Electricity/Communication	Songchon River Electric Factory(성천강전기공장)
		Light Industry	Hamhung Disabled Soldiers' Essential Plastic Goods Factory(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Hamhung Songchon River Clothing Factory(함흥성천강피복공장), Hamhung Essential Foodstuff Factory(함흥기초식품공장)
	Construction materials	Hamheung Silicate Brick Factory(함흥실리카이트벽돌공장)	
	Science/Research	Laboratory	Hamhung Branch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국가과학원 함흥분원)
Agricultural/Stockbreeding /Fishing Industry	Cooperative Farm	Hamhung Youth Goat Ranch(함흥시청년염소목장)	
Sinuiju, North Pyongan	Factory/Industrial Complex	Heavy Industry	Ragwon Machinery United Enterprise(락원기계련합기업소), Chuncheon River Machinery Factory(청천강기계공장)
		Light Industry	Sinuiju Shoe Factory(신의주신발공장), Sinuiju Textile Mill(신의주방직공장), Shinuiju Cosmetics Factory(신의주화장품공장), Sinuiju Iron Enamel Workshop(신의주법랑철기공장), Sinuiju Essential foodstuff Factory(신의주기초식품공장)

축수산, 에너지 부문의 비율이 높았으며 함흥과 신의주는 공장/기업소의 비율이 높았다. 공장/기업소, 농축수산, 에너지는 모두 국가경제에 기반이 되는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Table 4>에서 강계는 함흥에 비해 2배 높은 현지도 비율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강계는 김정일 체제 때 주창된 ‘강계정산’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강계가 당시 북한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자강도 경제 부문 현지도 중 김정일이 사회주의 강행군의 해를 선언하면서(김정일 1998), 이는 ‘강계정산’이란 경제 선동 구호로 이어졌다. 당시 강계가 ‘고난의 행군’으로 대변되는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지역적 기반이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강계정산을 표현한 출판매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의 돌파를 위해 동원된 김정일의 이미지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김정일 현지도가 지역의 균등성과 연계되는 이유 또한 파악할 수 있다.

“박달나무도 얼어터진다는 북방의 추운 겨울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여러날에 걸쳐 수천리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자강도사람들이 지닌 충실성의 정신, 자력갱생의 정신, 락관주의정신, 애국주의정신을 강계정신으로 값높이 빛내여주셨다”(립정호 2018).

추운 날씨에 수천 리 길을 강행군하는 통치자의 모습은 곧 자강도 사람들의 경제적 노력으로 직결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는 통치자가 많은 곳을 힘들여 갈수록 나아진다. 당시 김정일 현지도

가 다수의 지역에서 비교적 균등한 분포로 나타난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정은의 현지도는 평양과 원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Figure 4> 참조). 이 현지도를 산업 및 시설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김정일의 현지도를 분류한 결과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현지도가 거의 모든 산업 및 시설 부문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Table 7> 참조). 앞서 김정일의 현지도는 지역의 분포는 비교적 균등한 반면, 그 지역에서 현지도한 산업 및 시설은 공장/기업소, 농축수산, 에너지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한 지역 내에 거의 대부분의 산업 및 시설 부문에서 현지도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 북한의 ‘자생단위’ 구축과 연관지을 수 있다. 임동우(2011, 233)에 따르면 자생단위란 생산에서 교육, 주거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필요한 산업과 시설을 하나의 구역에 구축함으로써 구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가능한 계획 개념이다.

김정은의 현지도를 통해 본 평양과 원산은 경공업 기반의 공장/기업소, 식량 생산을 위한 동물공장과 수산사업소, 교육을 위한 문화교양 시설과 학교, 관광 목적의 유희장, 물놀이장, 스키장, 그리고 철도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과 시설이 집약된 곳이다. 북한 도시의 자생단위 측면에서, 평양과 원산은 김정은 체제가 중시하는 경제 분야를 적절히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⁹⁾

종합하면, 김정은의 현지도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었으나 경관의 측면에서는 다양성을 확보하는 특징으로 귀결된다. 앞서 김정일이 경제적 상황의 전환을 위해 다수의 지역을 계속적으로 다녔다는 점에서 두

9)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지역 핵심 교통과 관광 자원의 계획을 통한 원산관광지구 개발을 강조했음(김선철 2018, 66). 원산 개발은 자생단위의 개념을 포함하는 한편, 관광지로의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Table 7_ Classification of Kim Jong–Eun’s Supervised Landscapes in Pyongyang and Wonsan according to the Industry and Facility Fields

Industry/Facility Field	Pyongyang		Wonsan	
	Particulars	Number(%)	Particulars	Number(%)
Factory/Industrial complex	Light Industry, Chemical Industry, Heavy Industry, Construction materials	53(30.1)	Light Industry	7(21.9)
Education/Health/Care	Day care center, Kindergarten, School, hospitals, Sanatorium, Day care center	24(13.6)	School, Day Care Center	3(9.4)
Housing/Construction/Civil engineering	Boulevard/District	18(10.2)	Boulevard/District	1(3.1)
Agricultural/Stockbreeding/Fishing Industry	Cooperative Farm, Livestock Processing Plant, Fishery Business base, Tree Nursery	18(10.2)	Livestock processing Plant, Fishery Business Base, Cooperative Farm	8(25.0)
Science/Research	University, Laboratory, Observation Post	16(9.1)	-	-
Culture/Propaganda	Revolutionary Historic Site, Museum/Exhibition, Library, People's hall/palace, Theater	14(8.0)	Theater, People's Hall/Palace	6(18.8)
Amusement/Entertainment/Tourism	Amusement Park, Water Park, Zoo	11(6.3)	Ski Resort	5(15.6)
Commercial/Convenience Service	Store, Exercise Facility	8(4.5)	-	-
Transportation	Airport, Subway	7(4.0)	Railways	1(0.6)
Sports	Gymnasium, Sports Stadium	7(4.0)	-	-
Energy	-	-	Hydroelectric Power Station	1(0.6)
Total	-	176(100)	-	32(100)

통치자의 현지지도는 매우 대조적이다. 북한의 현지 지도가 통치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문제를 살핀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상기했을 때, 김정은의 현지지도는 그 본래의 의미와 방식에서 김정일과 그 양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현지지도가 북한의 대중 통치의 한 방식으로 유효한 현 상황에서, 김정일에 비해 적은 수의 지역으로 간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통해 어떤 북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가?

IV. 경관 활용에 있어 동시대 북한의 변화

1. 경관 모빌리티의 가속화

김정은 체제의 시작인 2012년을 전후로 포착된 북한

의 변화 중 하나로 보도 매체의 전달 속도 증가를 들 수 있다. 노동신문은 2011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북한이 제공하는 정보에 보다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손제민 2011).

위와 같은 변화는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적극 활용되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 변영옥은 노동신문이 김정은의 배경으로 전용 비행기를 보여준 것을 예시로 북한 통치자의 사진이 곧 외부에 보이고 싶은 것을 대변함을 강조했다(이동훈 2017, 31-32). 그에 말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전후 보도 매체의 변화는 북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소통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한 의도 또한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진 속 김정은의 배경을 통해 소통의 의도를 파악했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통치자가 응시하는 것보다 배경을 강조하는 구도가 북한의 시각적 장치로서 유형화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김정일 체제의 배경막은 접견장에 고정된 풍경화였으나, 김정은 체제의 것은 그가 현지지도한 곳이 어디이며 그곳의 경관이 무엇인지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는 배경막이 '고정성(Fixability)'에서 '이동성(Mobility)'으로 그 속성을 변환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존 어리(John Urry 2007, 102)는 19세기 산업화 시기에 고도화된 이동 기술의 발전이 "토지에서 경관으로의 전환"을 일으켰음을 강조한다. 경작하고, 파종하고, 건물을 세우는 물리적이고 기능적 작업의 장소였던 토지는 그곳을 빠르게 지나쳐 가는 빠른 속도를 통해 무형의 시각적 자원인 경관으로 분리되었다(Urry 2007, 103). 그중 철도의 발명은 이동 가능한 곳을 증가시켰고, 동시에 그곳에 도달하기까지의 거리를 축소시켰다는 점에서 어리가 제시하는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하나다.

어리(Urry 2007, 100)는 철도가 "다수의 장소를 서로 가깝게 연결해 거리를 줄임으로써 공간을 수축"시킨 동시에 그것이 "없었다면 결코 연결되지 않았을 장소를 연결함으로써 공간을 팽창"시켰다고 주장하며 철도가 사회에 가져온 극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빠른 속도만큼 거리가 수축되고, 또 그만큼 팽창된 공간은 빠르게 움직이는 '경관의 파노라마'를 제공한다.

경관의 파노라마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물리적 이동 그 이상으로의 가속화가 일어났다. 책상에서 지구 반대편의 경관을 그림엽서와 사진, 나아가 컴퓨터 파일로 볼 수 있게 되면서 경관의 이동은 비물리적이며 동시적인 속성을 지니게 됐다(이희상 2016, 4).

김정은 현지지도에 대한 노동신문의 보도는 북한의 경관이 비물리적인 속성을 가속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속화는 두 가지 측면의 '이

동'을 통해 이뤄졌다. 첫째, 사진 프레임을 중심으로 본 이동 주체의 변화다. 과거의 현지지도는 북한 전역에 있는 경관으로 '통치자가 이동'해 이뤄졌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 집중된 김정은의 현지지도는 통치자가 있는 사진 프레임으로 '경관이 이동'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시각 매체를 통해 경관이 이동하는 속도의 증가다. 종이 신문이라는 사물에서 인터넷과 같은 가상공간에 위치하게 된 경관은 현지지도를 통한 통치 체계의 확산 속도를 높인다. 김정은 체제의 경관은 사진 프레임에 고정된 통치자와 그 배경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구조의 모빌리티라는 특성을 지닌다.

2. 지속적인 근대화 노력과 변화의 조짐

현지지도 동향에서 김정은이 다수의 지역에 직접 가는 양상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로 북한 통치 체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내각책임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1998년 김정일 체제가 본격화하면서 만들어진 국정운영 체계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의 내각책임제는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방도"(한성기 2013, 11)로, 경제가 곧 내각이라는 등식을 내세운다고 할 수 있다.

임을출(2015)은 내각책임제가 "당과 군이 대외 무역을 통해 얻은 수익을 독자적으로 운영해왔던 관행에서 탈피해 국가 재정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경제 운영에 내각책임제를 확고하게 정착시킨다는 구상"임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내각 총리가 독자적으로 현장에 가서 현지 요해를 하는 것 또한 위 구상의 일환이다(임을출 2015).

경제 건설을 위한 현장의 책임이 내각에 집중됨에 따라, 관료의 현장 방문이 현지지도를 대체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수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각 책임제

와 현지도는 이미 김정일 체제에서부터 시행된 제도다.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두 가지다. 기존의 제도 사이의 비중을 달리하는 것이 경제 문제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 그리고 내각책임제를 비중 있게 추진하는 이유에 관한 것이다.

국가 지도자가 현장을 직접 시찰하는 통치 행위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전개된 바 있다. 중세 영국의 시골 지역을 정치적 영토로 확장하기 위해 그곳에 왕이 행차하거나(Medlicott 2005, 76),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지역에 가는 경우(Doherty 2007) 또한 통치 행위로서 현장 시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지도자의 시찰을 경관 또는 장소, 시설과 같은 구체적인 공간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19세기 후반 일본 메이지유신 시기에 있었던 왕의 순행(巡幸)과 1970년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통령 시찰을 들 수 있다.

다카시 후지타니(Takashi Fujitani 2003)는 순행이 19세기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정치적 질서를 근대적 내셔널리즘의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수단으로 창안된 것임을 강조한다.¹⁰⁾ 그에 따르면 기존의 지역공동체인 번(藩)에 고립되었던 국민은 하나의 왕을 직접 뵈으로써 근대적 의식을 함양하며, 이러한 의례는 도시, 신사, 추모비, 기념건축물, 기념비, 그림과 사진에 “기억의 경관”(Memoryscape)으로 재현되어 왕이 다녀간 후에도 지속된다(Fujitani 2003, 44-50). 박삼현(2012, 128)은 1872년에 순행 일행이 방문한 시설이 박람회, 조폐료(造幣寮), 조선소, 방적공장, 대포 제작소, 양학교, 여학교, 의학교 등과 같이 주로 당시의 문명개화정책을 상징하는 곳들이었음을 제시한다.

김우철(2015, 3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시

찰은 1970년대에 집중적으로 시행된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점차 감소했다. 그에 따르면 농어촌, 공장, 기반 시설, 교육/연구, 문화/관광, 도시, 관공서, 군부대 등에서 이뤄진 대통령 시찰은 “형체가 없는 국가주의적 담론”을 “장소로 구체화”하는 한편, 이 구체화된 장소는 추상적인 통치 과정을 구체적 장면으로 가시화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통치를 번역”하는 작업이다(김우철 2015, 96).

두 국가의 사례 모두 현지 시찰은 십 년이 조금 넘는 일정 기간 동안에만 이뤄졌다.¹¹⁾ 또한 각 국가가 당시 당면했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지 시찰이 활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본은 중앙집권화와 근대화,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이 각각의 과제였다. 두 사례에서 근대적 경관에 가시화된 왕과 대통령은 국가의 근대적 전환기에 집중적으로 쓰인 발전 동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의 근대적 전환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됨에 따라 발전 동력은 다른 제도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지 시찰은 점차 감소했다.

북한의 현지도는 1945년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북한에서 현장의 직접 통치는 ‘계속작’이라는 점에서 특수하다. 앞서 사례에서 현장 시찰이 근대적 전환기에 한정적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의 계속되는 현지도는 국가의 근대적 전환을 끊임없이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김정은 체제는 현지도 이후 내각책임제라는 다른 제도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북한이 근대적 전환 이후의 다른 발전 동력을 채택한 것과 같은 상황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사례에서 본 현지 시찰은 특정 기간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에

10) 산지가 많은 일본의 지리적 특성과 중앙 집권이 늦었던 일본의 역사적 특성이 결합된 결과로도 볼 수 있음. 반면, 한반도는 통일 왕조가 통일신라 이래로 일찍부터 조성되어 있었으며,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지방관 파견이 있었음.

11) 일본의 순행 기간은 1872년부터 1885년까지임(박삼현 2012, 111).

서 북한의 상황을 동일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노동신문이 여전히 당의 기관지로서 정책 홍보와 대중 교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소통 기능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김정은의 현지지도는 특정 지역의 수직적이고 대형화된 경관에 집중되었으며, 노동신문에 관행화된 구도에 따라 통치자와 경관은 시각적으로 결합했다. 결국 동시대 북한의 현지지도는 현장에 대한 책임과는 거리를 멀리하는 대신, 현장의 성과와는 가까이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 하는데 실제 고난의 행군을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가? 고난의 행군을 하는 건 장군님 한 분 뿐이시라고 말이오다...너도 텔레비를 보아서 알겠지만 우리 장군님께서 잠시의 휴식도 없이 인민군부대들을 찾아 험한 산밭을 타고 계시지 않느냐. 이 조국을 지켜주구 운명을 지켜주시려고 말이다”(박일명 1999, 9).

김정일과 김정은 체제의 현지지도는 실시된 지역의 분포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지도 대상이 된 경관 또한 종류와 그 비율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통치 체제에서 현지지도에 비중을 두는 정도 또한 달랐다. 이처럼 두 통치자의 현지지도는 현장에 대한 직접 통치라는 점 외에는 다소 상이하다.

그러나 경제 사정에 대한 책임의 회피 양상은 두 체제에 나타나는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현지지도를 재현한 여러 매체는 통치자가 직접 현장으로 가는 통치 체계 안에서도 실무적 해결자가 되기보다 상징적 존재로 남게 되는 모순을 적절

히 보여준다. 이러한 모순을 위해 두 통치자는 각기 다른 경관과 시각적으로 결합됐다.

김정일 체제의 경관 활용 방식은 통치자의 애쓰는 모습을 강조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을 선택하고 반복하는 것이다. 매체 속 김정일은 어려운 경제를 돌보기 위해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험한 곳으로 강행군을 한다. 힘들여 노력한 자를 질책하기 어려운 것처럼, 김정일은 북한의 여러 가지 경관으로의 끊임없는 이동함으로써 경제적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했다.

김정은 체제의 경관 활용 방식은 즉각적인 정보 전달 속도를 통해 배경막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새롭고 화려하며 입체적인 경관과의 거리는 가까운 대신,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경관으로부터의 거리는 제도를 통해 멀리 떨어졌다. 현장에 있지만 상징적 존재로만 남게 되는 전략, 이는 두 체제가 다른 방향의 모빌리티를 채택함으로써 실행되었다. 이들은 각각 사람의 모빌리티, 그리고 경관의 모빌리티다.

참고문헌 •••••

1. 구글어스. <https://earth.google.com> (2019년 1월 23일 검색). Google Earth. <https://earth.google.com> (accessed January 23, 2019).
2. 김남시. 2015. 미디어와 북한-디지털 이미지가 매개하는 북한. 미술과 거울국가: 2015 예술인 통일문화아카데미 자료집: 48-59.
Kim Nam-See. 2015. Media and North Korea-North Korea, which is mediated by digital images. *Art and Mirror State: Preceding of Unified Culture and Art Academy in 2015*: 48-59.
3. 김선철. 2018. 북한 김정은 2018년 신년사 분석. 월간교통 239호: 62-68. 세종: 한국교통연구원.
Kim Sunchul. 2018. Analysis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s New Year's message in 2018. *Monthly KOTI Magazine on Transport*, no.239: 62-68. Sejong: The Korea

- Transport Institute.
4. 김우철. 2015. 1970년대 대통령 시찰을 통해서 본 국가통치의 공간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Kim Woo-cheol. 2015. *The Research on State Spatiality in Domestic Presidential Visit in South Korea in the 1970s*. M.D. diss., Seoul National University.
 5. 김정일. 1998. 자강도의 모범을 따라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Kim Jong-Il. 1998. *Let's Create a New Transition in Economic Enterprise and People's Lives Following the Model of Jagang-do*. Pyongyang: Workers' Party of Korea Publishing House.
 6. 림정호. 2018. 불멸의 그 업적 우리는 잊지 않으리. 로동신문. 10월 14일, 1면.
Lim Jung Ho. 2018. We will not forget the achievement of immortality. *Rodong Sinmun*, October 14, 1.
 7. 박삼헌. 2012.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체제. 서울: 소명.
Park Sam Hun. 2012. *National System of a Modern Japan Formative Period*. Seoul: Somyong Publishing.
 8. 박일명. 1999. 전환. *조선문학* 620호: 5-16.
Park Il-Myung. 1999. Transition. *Joseon Literature*, no.620: 5-16.
 9. 박영실. 2013. 『로동신문』을 통해 살펴본 북한의 전후 복구 과정(1953~1958년). 통일문제연구 59호: 329-359.
Park Young-Sil. 2013. Reconstruction process of North Korea after Korean War analyzed on the basis of *Rodong Sinmun*(1953~1958).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59: 329-359.
 10. 박영정, 양현미, 김해준, 송승섭, 안창모, 전영선. 2002. 북한의 문화시설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ark Youngjung, Yang Hyunmee, Kim Hyejoon, Song Sungseob, Ahn Changmo and Jun Youngsun. 2002. *A study on cultural facility in North Korea*. Seoul: Korea Culture and Tourism Policy Institute.
 11. 변영욱. 2015. 김정은.jpg: 북한 이미지 정치 엿보기. 파주: 한울.
Byeon Yeongwook. 2015. *Kim Jong-Eun.jpg: North Korean image politics*. Paju: Hanulbooks.
 12.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 (2019년 1월 20일 검색).
Information portal on North Korea. <http://nkinfo.unikorea.go.kr> (accessed January 20, 2019).
 13. 본사정치보도반. 197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의 특사를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로동신문, 2월 15일.
Rodong Sinmun Political Press corps. 1977. Kim Il-Sung met with the special envoys from the Yemen President's board of directors and took a commemorative photograph. *Rodong Sinmun*, February 15.
 14. _____. 200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안북도 창성군을 현지지도하시었다. 로동신문, 10월 26일.
_____. 2002. Kim Jong-Il supervised Changseong County, North Pyongan Province. *Rodong Sinmun*, October 26.
 15. _____. 2007.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현정은 남조선현대그룹 회장과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을 접견하시었다. 로동신문, 11월 3일.
_____. 2007. Kim Jong-Il met with Hyun Jeong-Eun, chairperson of South Korea's Hyundai Group, and Yoon Man-Joon, president of Hyundai Asan. *Rodong Sinmun*, November 3.
 16. _____. 201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쿠바공화국 국가대표단을 접견하시었다. 로동신문, 9월 8일.
_____. 2015. Kim Jong-Un met with the delegation of Cuba. *Rodong Sinmun*, September 8.
 17. _____. 2017.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었다. 로동신문, 1월 15일.
_____. 2017. Kim Jong-Eun supervised the newly built Geumsanpo salted fish plant and Geumsanpo fishing station. *Rodong Sinmun*, January 15.
 18. 사회과학출판사. 2017. 조선말대사전(증보판) 4.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Social Science Publishing House. 2017. *Joseon-mal Dictionary(Expanded Edition)* 4. Pyongyang: Social Science Publishing House.
 19. 서재진. 2001. 북한의 토지정리사업의 배경 및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Suh Jae Jean. 2001. *Implications for the Background and Policy Direction of Land Arrangement Task in North Korea*.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 손제민. 2011. 북 노동신문 홈페이지 열어. 경향신문, 2월 17일, 8면.
Son Jemin. 2011. North Korea opened the website of the Rodong Sinmun. *The Kyungbyang Shinmun*, February 17, 8.

21. 언어 문학 연구소, 편 1960. 조선말사전 1. 평양: 과학원 출판사. Institute of Language and Literature, ed. 1960. *Joseon Language Dictionary 1*. Pyongyang: Science Academy Publishing House.
22. 위키매피아. <http://wikimapia.org> (2019년 2월 2일 검색). Wikimapia. <http://wikimapia.org> (accessed February 2, 2019).
23. 이동훈. 2017. 만나고 싶었어요 | 변영욱 동아일보 사진부 차장: 북한 1호 사진에 김정은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죠. 통일 한국 407호: 30-33.
Lee Dong Hoon. 2017. Byeon Yeong Wook, deputy head of the photography department in The Dong-A Ilbo: North Korea's No.1 photographs show Kim Jong Un's desire. *The Unified Korea*, no.407: 30-33.
24. 이승엽, 이석기. 2014. 2000년대 북한기업 현황: 북한 공식 매체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산업연구원.
Lee Seungyoub and Lee Seog-Ki. 2014. *North Korean companies in the 2000s: based on the analysis of North Korea's official media*.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25. 이희상. 2016. 존 어리, 모빌리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Lee Hee Sang. 2016. *John Urry, Mobility*. Seoul: Communication books.
26. 임동우. 2011.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평양 도시 공간에 대한 또 다른 시각 1953-2011. 파주: 효형.
Yim Dongwoo. 2011. *Pyongyang, and Pyongyang After*. Paju: Hyohyung Publishing Co.
27. 임을출. 2015. 당·군 '돈줄' 빼앗아 내각에 쥐여줘. 시사저널 1353호.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142> (2019년 12월 13일 검색).
Lim Eul-Chul. He took the 'money line' of the party and the army and gave it to the cabinet. *Sisajournal*, no.1352.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142> (accessed December 13, 2019).
28. 전문원. 2005a. 우리 민족의 자랑 <선군8경> (1). 민족문화유산 1월호: 11-12. 평양: 조선문화보존사.
Jeon Moonwon. 2005a. The pride of our people <Songun-Palgyeong> (1). *National Cultural Heritage* 2015, no.1: 11-12. Pyongyang: Joseon Munhwa Bojonsa.
29. _____. 2005b. 우리 민족의 자랑 <선군8경> (2). 민족문화유산 2월호: 15-17. 평양: 조선문화보존사.
_____. 2005b. The pride of our people <Songun-
- Palgyeong> (2). *National Cultural Heritage* 2015, no.2: 15-17. Pyongyang: Joseon Munhwa Bojonsa.
30. 통일연구원. 2011. 김정일 현지도 동향: 1994-2011. 서울: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1. *Kim Jong-il's Field Guidance Tendency*.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31. 한성기. 2013.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는것은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방도. 경제연구 160호: 11-12.
Han Seong-Ki. 2013. Strengthening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and the cabinet-centered system is an important way in that it is a revolutionary transition to improve people's lives and build a nation with a strong economy. *Economic Research*, no.160: 11-12.
32. 홍민. 2002. 북한의 현지도와 경제 운영: 계획경제와 '교시경제'의 변주곡. 정치비평 9권: 173-201.
Hong Min. 2002. Field guidance and economic operations in North Korea: The variations of the economy by planning and instruction. *The Community For The Korean Political Studies* 9: 173-201.
33. _____. 2014.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북한경제리뷰 16권, 8호: 35-62.
_____. 2014. The apartment construction market and urban politics in North Korea.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16, no.8: 35-62.
34. 황재준. 2001. 북한의 현지도: 끝나지 않은 군중노선의 이상. 경제와 사회 49권: 41-71.
Hwang Jae-Jun. 2001. Field guidance of North Korea: The unfinished ideal of the crowd route. *Economy and Society* 49: 41-71.
35. Benjamin, W. 2007.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 사진의 작은 역사 외. 최성만 역. 서울: 길.
Benjamin, W. 2007. *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 / Kleine Geschichte der Photographie*. Seoul: Gill.
36. Doherty, B. J. 2007. Elections: The Politics of the Permanent Campaign: Presidential Travel and the Electoral College, 1977-2004.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7, no.4: 749-773.
37. Fujitani, T. 2003. 화려한 군주: 근대일본의 권력과 국가의례. 한석정 역. 서울: 이산.

Fujitani, T. 2003. *Splendid Monarchy: Power and pageantry in modern Japan*. Seoul: Yeesan.

38. Medlicott, C. 2005. Symbol and sovereignty in North Korea. *The SAIS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25, no.2: 69-79.

39. Stalin, J. V. 1976. Some Questions concerning methods of leadership. In *Problem of Leninism*, 560-577. Beijing: Foreign Language Press.

40. Urry, J. 2007. *Mobilities*. Cambridge: Polity.

- 논문 접수일: 2019. 10. 10.
- 심사 시작일: 2019. 10. 16.
- 심사 완료일: 2020. 3. 10.

요약

주제어: 북한, 도시경관, 현지지도, 로동신문, 김정은, 김정일

이 논문은 통치의 수단으로서 북한이 경관을 활용하는 방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김정일 현지지도와의 비교를 통해 경관의 활용 양상을 분석하고, 현재 김정일은 집권 시기의 경관 변화와 이것이 시사하는 바를 진단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동일한 개월 수 동안의 김정일과 김정은 현지지도 보도 기사를 ‘경관과 통치자와의 연계 방식’, ‘경관의 종류’, ‘경관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두 체제가 경관을 활용하는 방식의 차이는 지도자의 배경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일 체제의 배경막은 접견장에 고정된 풍경화다. 반면 김정은 체제는 로동신문의 현지지도 사진에서 통치자의 배경에 위치한 경관이 배경막을 대체한다. 이 배경막은 현지지도 경

관을 따라 즉각적으로 변환된다. 다음으로, 두 체제의 시각 매체에 재현된 경관을 통해 경제 상황에 대한 회피 양상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매체 속 김정일은 어려운 경제를 돌본다는 목적하에 험난한 경관으로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강조된다. 그리고 매체 속 김정은은 현지지도를 통해 새롭고 화려하며 입체적인 경관과의 거리를 가까이 한 대신,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경관으로부터는 또다른 제도를 통해 멀리 떨어진다. 현장에 있지만 실무적 해결자이기보다 상징적 존재로만 남게 되는 전략, 이는 두 체제가 다른 방향의 모빌리티를 채택함으로써 실행되었다. 이들은 각각 사람의 모빌리티, 그리고 경관의 모빌리티다.